



은행계 보험회사 설립 본격화, 기존 보험회사 판매채널 위축 우려

왕양비 연구원

- 2월 21일 딜로이트 회계법인이 발표한 ‘2012년 중국보험업 추세 전망’ 보고서는 상업은행의 보험산업 진입이 본격화되면서 기존 보험회사에게 타격을 줄 것으로 예측함.
- 2009년 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 상업은행의 보험업 진출을 허용한 후 현재까지 4개의 은행계 보험회사¹⁾가 설립되었는데, 2011년 들어 그 설립 속도도 빨라지고 있음.

〈표 1〉 은행계 보험회사 설립 현황

설립시기	보험회사명	지주회사
2005년 1월	BOC Insurance(中银保险) ²⁾	중국은행(100%)
2010년 1월	BoCommLife Insurance(交银康联)	교통은행(51%), 호주 커먼웰스 은행(CBA, 49%)
2010년 5월	ING-BOB Life Insurance(中荷人寿)	베이징 은행(BOB, 50%), ING생명(50%)
2010년 7월	Sun Life Everbright(光大永明)	광대은행(50%), Sun Life Financial(25%) 등
2011년 6월	CCB Life(建信人寿)	건설은행(51%), Taiwan Life(19.9%) 등
진행상황	협의를기	지주회사
협의 완료 심사대기 중	2010년 10월	공상은행(60%), AXA(27.5%), Minmetals(12.5%)
협의 완료 심사대기 중	2011년 2월	농업은행(51%), Jiahe Life(49%)
협의 완료 심사대기 중	2011년 6월	조상은행(50%), CIGNA & CMC(50%)
협의 중	-	중국은행, Heng An Standard life

자료: 각 회사 홈페이지.

- 현재 중국 5개 대형은행³⁾ 중 3개사와 광대은행 등 우수 민영은행이 이미 자사의 보험회사를 설립했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2개 대형은행 및 기타 우수 민영은행도 인수대상기업과의 협의를 마치고 막바지 심사단계에 들어감.

1) 은행계 보험회사는 은행이 지배주주인 보험회사나 은행이 자회사로 설립한 보험회사를 가리킴.
 2) BOC Insurance는 2005년 베이징에서 설립된 손해보험회사로 설립 당시에는 은행감독위원회가 상업은행들의 보험업 진출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은행이 홍콩에 위치하는 자회사를 통해 동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함. 2010년 8월 중국은행이 보험감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홍콩 자회사로부터 BOC Insurance의 지분 전부를 인수함.
 3) 중국 5대 대형은행은 공상은행, 건설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등 4대 국유은행과 주주제 은행인 교통은행을 포함하며, 교통은행의 지배주주는 중국 재정부임.

- 방카슈랑스 관련 규정 시행으로 기존 보험회사들의 판매채널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계 보험회사들이 모회사의 방카슈랑스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함에 따라 기존 보험회사들의 판매채널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 2010년 10월 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 보험회사 파견 설계사의 은행 활동을 불허하고, 각 은행 지점에 대해 3개사 이하의 보험상품만을 판매하도록 규제함에 따라 생명보험의 중요 판매채널인 방카슈랑스가 크게 위축됨.
- 이와 더불어 2010년 11월부터 지속된 기준을 인상에 따라 자금이 부족한 은행의 경우 예금 확보를 위해 단기 금융상품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보충하는 동시에 보험업에 진입하여 업무영역을 확장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
- 은행계 보험회사들은 모회사의 풍부한 자금 지원과 서비스망, 그리고 브랜드 우위로 매출을 확보하고 있으나, 기존 보험회사들은 은행계 보험회사들의 개입으로 은행과의 대리관계 체결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봉황망, 중국경제신문, 등 2/22)